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규 동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 일 웅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규 동

김규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김 동 욱 (인)

부위원장 금 현 섭 (인)

위 원 권 일 웅 (인)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되며,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다른 예산비목들과 달리 예산집행자의 의중이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업무상 필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경영자의 사적소비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한 동결 및 삭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며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활용되었는지 사적소비에 그쳤는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그래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래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이것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띄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경영평가 등급,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총자산수익률(ROA),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주요사업 성과를 계량평가 결과와 비계량평가 결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정규직 현원 및 총자산과 같은 기관규모, 기관연령, 기관 평가군 유형, 기관장 출신 배경 등과 같은 기관특성 요인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민간기업의 접대비와 그 경영성과간의 관계까지 확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법인세 손금한도 내 접대비 집행액은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연도별 특성과 기관 자체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연도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등급과 주요사업 계량평가 결과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높을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는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외 유관기관 및 직원 내부격려 등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 원만한 사업추진 및 내부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사업의 계량적 성과창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기관장의 내·외부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노력 연구결

과가 특이했던 점은 수익창출과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접대비가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이 수익성 향상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고, 공공성 측면에서 주요사업의 계량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석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조직체의 특성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의 효과에도 반영되는데 공공성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관장 업무추진비, 네트워크,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성과, 고정효과모형, 순서형 로짓 모델
학 번 : 2021-23540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8

제 1 절 업무추진비 ····· 8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개요 ····· 8

2. 업무추진비 특징 및 집행 ····· 9

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 12

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 14

5. 업무추진비 관련 선행연구 ····· 17

제 2 절 경영성과 ····· 20

1.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측정 ····· 2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22

제 3 절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25

제 3 장 연구설계 ····· 31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 31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 32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4

1. 종속변수 ····· 34

2. 독립변수 ····· 36

3. 통제변수 ····· 37

제 4 절 분석모형 ····· 42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 44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44

제 2 절 변수간 다중공선성 분석 ····· 47

제 3 절 회귀분석 결과 ····· 48

1.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48

2. 재무적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0

3.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2

4. 소결 ····· 56

제 5 장 결론 ····· 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6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63

표 목 차

[표 1-1] 연구대상 기관 리스트 ····· 6

[표 2-1]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 9

[표 2-2] ALIO 내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 16

[표 2-3] 업무추진비 관련 선행연구 요약 ····· 19

[표 2-4] 정부, 공기업, 사기업 간 비교 ····· 21

[표 2-5]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 23

[표 2-6] 평가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24

[표 2-7] 접대비와 경영성과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결과 · 29
[표 3-1]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2020년 기준) ····· 37
[표 3-2] 변수들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1
[표 4-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 44
[표 4-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 45
[표 4-3] 통제변수 중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량 ····· 45
[표 4-4] 통제변수 중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량 ····· 46
[표 4-5] 연구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VIF값) ····· 47
[표 4-6]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48
[표 4-7] 총자산수익률(ROA)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0
[표 4-8]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2
[표 4-9]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4
[표 4-10] 다중회귀분석 종합결과 ····· 5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31

참고문헌 ····· 65
부록(경영평가등급에 대한 OLS 모형 추정결과) ····· 7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기타 국가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993년 이전까지는 '판공비'란 명칭으로 불리다 199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해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명시된 '접대비'란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정부예산편성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접대비를 포함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순화시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권훈·박민정, 2006)

안선민·이수영(2017)은 업무추진비를 국외에선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행정이 가지는 특수한 현상이라고도 하였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인건비나 사업비와는 특성이 달라 편성한도가 설정될 뿐만 아니라, 집행기준과 절차에도 제한이 있다(조용석, 황문태, 김상헌, 2018).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에서 편성하는 전체 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예산집행자의 의중이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주요추진사업 및 기관장들의 핵심숙원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할 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심은 일반수용비 등 여타 비목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희섭·최진현(2011)은 일정수준의 업무추진비가 업무상 필요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소비성 지출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경영자의 사적소비(perquisite consumption)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상통하게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1]를 언론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내부 및 외부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항상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견제대상이 된다. 정부 역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제한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에기 위해 클린카드(Clean Card)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집행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2020년도 예산액에서 5%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다. 지난 2019년 및 2020년에는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동결 편성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 편성된데 이어,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악화로 인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급성이 덜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간접비용인 업무추진비를 감액·동결하는 대신 사업비 등 직접비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또한, 업무추진비가 기관장과 간부들 식사 및 선물 구매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방만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업무추진비를 동결하려는 이유로 꼽

1) 한지훈, 「낙하산 기관장, 휴가 중·출장지 밖·집앞서 법인카드 펑펑」, 『연합뉴스』, 2021.10.07.

힌다. 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업무추진비 동결 방침에 반발이 적지 않다.[2]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를 요구하면서 성과 창출에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기관들이 적극적인 업무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여기에 착안하여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업무추진비가 가지고 있는 접대비 성격과,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되는 비용이라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정부에서 이 예산의 편성한도를 축소하고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민간기업의 접대비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연구 등은 일부 있으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나 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의 효과에 대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동결 및 삭감 방침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정해용, 「정부, 공기업·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올해도 동결」,『조선일보』, 2020.1.29.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특징이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가설을 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조사대상로 하되, 이 중에서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규정 및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므로 정부경영평가 방식이 달라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운법 제5조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총수입액 내 자체수입 비중이 100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하며 이 공기업에서도 자산규모가 2조원이고 총수입액 내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며, 그렇지 않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

연구자료 수집범위는 조사대상 기관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도로 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경영성과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다수 자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ALIO')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1년말 기준으로 ALIO에 있는 기관별 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

근 5개년도 자료가 공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에 변화가 발생한 점[3]에 미루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업무추진비 집행방식이나 집행액이 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이라는 역사요인이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2016년도는 제외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여객 수송이나 사행 산업 분야 공공기관은 실적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공부문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4]이 있어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주요한 역사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실적도 제외하여 연구범위를 2017년부터로 2019년까지 3개년도로 정하였다.

2019년말 기준으로 공기업은 시장형이 16개, 준시장형이 20개로 총 36개이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14개, 위탁집행형이 79개로 연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총 129개이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의 경우 고유사업 계정이 없고 기금계정만 있어 총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산정 회계기준이 타 기관들과 상이하여 수집 데이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해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조사기간동안 기관유형 변경[6]으로 인해 단년도 경영평가결과 실적만 확

---

3) 김지헌, 「청탁금지법 후 기업접대비 감소…분기당 2억9천만→2억7천만」, 『연합뉴스』, 2017.9.24.

4) 이명철, 「코로나에 혼밥 기관장 늘어...업추비 지출 5년내 최저」, 『이데일리스』, 2021.5.6.

5)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6개 기관

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 및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으로 편입

보되는 5개 기관[7]은 제외하였고, 2019년도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아니나 2017~2018년도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어 2개년 이상의 경영평가결과 실적이 확보되는 4개 기관[8]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표 1-1>과 같이 총 122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1-1> 연구대상 기관 리스트

구분 (기관 수)	연구대상 기관
시장형 공기업 (1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개)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개)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 2019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분 (기관 수)	연구대상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업무추진비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개요

업무추진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되고 있다. ,

예산을 지출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하는 품목별 분류에 따른 정부 예산과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물건비에 속하며, 이 물건비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총 7개의 비목(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안보비 등)으로 구성된다(윤성식, 2003). 이 업무추진비를 구성하는 하위 세목의 하나로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인 사업추진비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가 있다.

역대 정부 예산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경제기획원)에서 '특별판공비'란 명칭의 비목으로 현행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4년부터 현재 비목 명칭인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는데, 이 당시 업무추진비의 하위 비목으로 현행 사업추진비 성격과 유사한 '일반업무비'와 현행 직책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및 관서업무추진비 성격과 유사한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및 '정원가산금'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2004년부터 직무수행경비 비목이 신설되어 '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경

비' 등이 편성되면서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비', '관서업무경비' 및 '정원가산금'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2006년부터는 업무추진비의 하위 비목이 현행과 같은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비'(이후 명칭만 '관서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다)만으로 구성되어 편성 및 집행되어 오고 있다.

2. 업무추진비 특징 및 집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각각 기획재정부가 매년도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는데, 이들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일반적인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등과 같이 이들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인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편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에 접대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추진비의 편성 한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접대비는 업무상 필요하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을 규제하기 위해 손금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증액하는 전용은 기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의 정의를 보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집행 측면에서 봤을 때 업

무추진비는 이러한 접대비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집행용도나 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다른 비목들에 비해 자율적이기 때문에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 및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신무섭(2006)은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업무추진비는 물건비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의 운영과 유지에 관련이 있는 부수적인 또는 부차적인 경비라 기관의 사업이 많을수록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란 점, 둘째로 업무추진비의 지출대상은 무형의 활동이라 그 사용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하기 힘들어 낭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로, 업무추진비의 세목들은 성질이 유사하고 수당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어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마지막 넷째로 다른 경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에 재량의 여지가 많아 행정기관의 상층부로 갈수록 업무추진비 집행의 재량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가 확대되고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상통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표 2-1>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 집행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도 기관특성을 반영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1>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체크카드 포함) 중 일반 공공구매카드와 분리하여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예산·회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지침에 반영한다.

○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붙임 1〕 및 〔붙임 2〕 의 표준서식에 따라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출처: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은 정부예산 집행지침에 기반하여 각 기관별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비교사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보면, 2008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정·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직무활동 범위의 기준 등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오영교・김정은(2019)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 비중이 적지만 예산집행자의 재량 범위가 커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200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제정하는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법제화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열거방식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선심성 예산집행논란 방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 중 정액경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포함되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목적의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이에 대해 현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액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배정되어 집행되는데, 대다수의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별도의 집행기준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용도가 크게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대외 유관기관 업무협의, 내부회의 및 행사경비, 마지막으로 대외 유관기관 및 내부직원 경조사비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대외 유관기관 및 내부직원 경조사비의 경우, 정부 예산집행지침의 과목해소상 업무추진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운영비 비목에 편성되어 집행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에는 포함하고 있다[9].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그 목적이 기관장의 네트워크 역량(network capability)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역량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사회적 자본을 통해 획득된 유·무형의 자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장의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성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R.Zacca, M. Dayan & T.Ahrens, 2015; 우형록(2015),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외 유관기관과의 관계형성(relationship-building)을 접대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관행은 오래전부터 고착되어 왔으며, 접대비가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기업은 이미지 개선 외에도 장기적·단기적 성과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성환·김미나, 2011). 오문청 · 정수진(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기관장의 네트워크 확장 및 역량 강화의 노력을 측정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업무추진비의 특징 중 하나인 예산집행자의 높은 재량성으로 인해 강동관(2009)과 이희섭·최진현(2011)의 연구에서는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경영자의 사적소비의 한 형태로 보고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이론에 의거하여 이를 대리인 비용과 연결하기도 하였다.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9) 2006년부터 업무추진비(240)의 하위 비목이었던 정원가산금(240-03) 성격의 예산이 운영비(210)의 하위 비목으로 기타운영비(210-16)로 변경

존재한다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권일웅, 2012)에 바탕하여,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아닌 경영자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비용으로 보고 이를 대리인 비용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유경(2021)은 비즈니스 관계형성 문화가 사회 전반의 부패 증가 및 기업의 윤리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소비를 견제하고자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제도적으로 견제 및 통제하고 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정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ALIO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은 <표 2-2>와 같다. 공시항목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4월말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ALIO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수공시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확보하고 공시 오류 감소 및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2-2> ALIO 내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Ⅰ. 일반현황	Ⅱ. 기관운영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Ⅳ. 대내외 평가
1.일반현황	2.임직원 수 3.임원 현황 4.신규채용, 청년인턴 채용, 유연근무 현황 5.임원연봉 6.직원 평균보수 **7.기관장 업무추진비** 8.복리후생비 9.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10.임원 국외출장 내역 11.노동조합 관련현황 12.내부규정 13.징계현황 14.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15.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16.요약 재무상태표 17.요약 손익계산서 18.수입·지출현황 19.주요사업 20.투자집행현황 21.자본금 및 주주현황 22.장단기 차입금현황 23.투자 및 출자 현황 24.연간출연및증여 25.경영부담비용추계 26.중장기재무관리계획 27.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28.납세정보현황 29.감사보고서	30.국회지적사항 31.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32.경영실적평가결과 33.경영평가지적사항 34.고객만족도조사결과 35.감사직무실적평가결과 36.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Ⅴ. 공지사항
			37.경영혁신사례 38.임직원채용정보 39.계약정보 40.연구보고서 41.안전관리 현황 42.기타정보공개

출처: https://www.alio.go.kr

5. 업무추진비 관련 선행연구

업무추진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범위를 조금 확대하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범위로 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박광국・최상일・주효진(1999)은 판공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이 활성화되면서 처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대구광역시 산하 8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예산결정과정 및 지출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공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원칙인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투명성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공비가 자치단체장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계 및 의회의원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는 등 사적 용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연구과정에서 확인 결과 판공비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첨부도 되어 있지 않아 당시의 느슨한 판공비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과 단체장의 의식전환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촉구하였다.

신무섭(2006)은 전라북도, 전주시 및 완주군 구청장 및 군수의 판공비를 대상으로 예산결정 과정과 지출결과를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와 업무추진비가 예산결정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됨에 따라 편성된 대로 입법부에서 의결되고 추경을 통해서 조금 증가되어가면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결산시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업무추진비 통제 강화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무섭의 다른 연구(2009)에서는 2004년, 2006년, 2008년을 조사기간으

로 하여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자치단체가 구분되는지 판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1회도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공개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수 있었으며,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자치단체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신문 수와 시민단체 수로, 지역에 신문과 시민단체가 많으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용석(2017)은 2008~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와 같은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득표율과 지방선거 주기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라는 것과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란 점을 확인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혀내었다.

이희섭·최진현(2011)은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장독점형 기관에서 경영자의 성과급은 업무추진비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영자의 성과급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낮아져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자 성과급을 통하여 경영자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선민·이수영(2017)은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정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증가할 것이란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금의 증가는 업무추진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정책적 관심이 낮아 행동용이성이 높아지는 부문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표 2-3> 업무추진비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번	연구자	주요 연구 결과
1	박광국 등 3인 (1999)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은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투명성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미흡, 판공비가 자치단체장의 사적용도로 남용
2	신무섭 (200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나 결산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지 않음
3	신무섭 (2009)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 비율은 증가했으나 비공개 비율도 상당하며, 신문 수와 시민단체 수가 공개 및 비공개 자치단체를 구분하는 변수였음
4	조용석 (2017)	득표율과 지방선거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라는 것과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5	이희섭, 최진현 (2011)	경영자 성과급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낮아져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 경영자의 성과급으로 경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할 필요 있음
6	안선민, 이수영 (2017)	공공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금의 증가는 업무추진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

제 2 절 경영성과

1.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측정

경영성과란 기업의 경영활동의 산출물로 일반기업에서는 주로 영업이익, 수익성 등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므로(윤수재·이혜승, 2009), 민간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로 주가나 이윤창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로 나타난 회계수치를 활용하여 수익성 지표(자기자본수익률, 총자산수익률 등)와 같은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성과를 단순히 회계상 수치로 나타난 수익 등으로 국한하면 이익창출과 연결된 기업의 다양한 요소들은 고려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무적 요소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다(Kaplan & Norton, 1992).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 경영성과를 단순히 회계상 수치에 국한하여 평가하기 더욱 어렵다. 민간부문에서는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주로 능률적이거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및 사회적 가치 등 다수의 주요 기준들에 의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김준기(2014)는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과 사기업 부문이 공익 실현과 이윤극대화라는 양극단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혼합조직체로서의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공공재를 생산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관 형태별로 그 비중은 다를 수 있으나 <표 2-4>와 같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공공의 이익(공공성)과 사기업에서 목표로 하는 이윤극대화(기업성)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표 2-4> 정부, 공기업. 사기업 간 비교

구분	정부	공기업	사기업
목표	공공 이익	공공성+기업성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
거래방식	공권력을 통한 할당	공권력+시장가격 기구	시장가격 기구
재화의 특성	순수공공재	순수공공재+사적재	사적재
재원확보	공공재원	공공재원+사적재원	사적재원
소유권	공공소유	공공소유	사적소유

출처: 공기업정책론(김준기, 2014)

유미년(2012)도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설립되어 경제계획의 도구 혹은 최근에는 소득재분배, 복지정책, 고용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 활동을 한다고 하여 공공조직처럼 공공성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처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상통하게 박순애(2017)는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양대 가치인 공공성과 재무적 성과의 개념이 공공조직이 가지는 다차원성, 목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측정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보은(2017)도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조직의 목표가 다원적이고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과 같이 재무적인 부분만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논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각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공공성이라는 큰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 조직의 성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방준용(2006)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기관경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성과와 기관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부성과의 경우에는 경영성

과 중에서 기관자체에 국한되는 성과로써 경영목표 달성도 및 효율성 등 객관적으로 기업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외부성과는 기관의 활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하며, 국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의 측정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기업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경영성과를 특정하여 측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과를 측정할 때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성과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윤수재・이혜승, 2009).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성과의 종합 평가체계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희란・박정수(2015)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매년 각 기관별 경영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김준기(2014)는 경영평가제도가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성과관리의 수단으로서 공공부문 참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성과계약을 통해 성과지향적 개혁을 달성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야기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며, 경영성과의 측정 및 측정결과를 경영과정에 반영하여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경영평가 평가대상은 공운법에 명시된 구분 및 지정절차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으로 분류된 기관이며, 준정부기관 중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평가군 유형을 구분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2-5>와 같다.

<표 2-5>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Ⅰ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업Ⅱ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2019년말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

공운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할 기업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성과들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지표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평가년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따라 다소 조정된다.

<표 2-6> 평가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

<표 2-6>과 같은 주요 평가내용별 평가지표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명시되며, 각 기관은 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주요 평가요소에 맞추어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은 각 기관별로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 평가를 마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유형별로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6개 등급(S, A, B, C, D, E)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의 임원의 인사조치,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등에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의 경우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함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경고나 해임건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 3 절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업무추진비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하윤희(2008)의 연구 외에 사실상 전무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순수한 경영실적 외에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요인들 중 하나로 경영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 자원과 관리를 위한 투입비용을 들면서 이를 위한 측정변수를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하고 이것과 경영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액과 경영평가 결과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인적 네트워크 자원과 관리를 위한 투입비용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좋다는 가설이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되었는데 이 연구 외에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관련 선행연구는 없다. 업무추진비가 접대비를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민간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접대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수미(2003)는 접대비 비중이 높은 기업과 접대비 비중이 작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경영성과가 낮아 기업가치가 파괴된 반면, 접대비 비중이 작은 기업은 접대비 비중과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을 통해 적절한 접대비 지출은 필요하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기업과 사회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접대비 지출에 관한 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다른 연구(2007)에서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해 상장 및 비상장한 기업으로 구분해 접대비 지출 비중을 조사하고 그것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중 하나로 접대비 비중이 높은 경우 수익성이 낮고,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가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접대비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최원욱·김갑순·이영한(2005)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를 초과한 지출액의 수익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손금한도내 지출기업과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 지출 기업에 대하여 각각 접대비와 매출액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접대비 총액은 수익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은 수익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대비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와는 반대로 접대비와 수익성이 긍정적인 관계로 도출된 연구도 있는데, 이태정(2009)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상장기업 중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의 수익창출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접대비와 수익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접대비와 수익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 지출 규모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여 회구분석 한 결과에도 전체집단군에서 접대비와 수익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록, 김강호(2010)는 다양한 기업특성과 경영자 유인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337개 관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중 접대비와 경영성과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보면, 당기 매출액과 접대비 지출비율은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채택하여 접대비는 수익과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김성환・김미나(2011)는 기부금 및 접대비의 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9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기부금 및 접대비의 지출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업성과에 부정적이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모수원(2013)는 접대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광고비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광고비보다 접대비가 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매출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광고비와 접대비는 순이익 증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나 여기에서도 접대비가 광고비보다 효과가 더 확실하여 광고비보다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출액과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라 밝혔다.

이하진・권기정(2019)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외부회계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지표인 투자자본수익률(ROI)과 기업가치의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토빈Q, 그리고 Ohlson(1995)의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그리고 기부금과 같은 기업이미지 관련 비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기업규모(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와 소속시장(코스닥, 코스피)에 따라 기업표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접대비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들었는데, 분석 결과 접대비는 총자산이익률(ROI)로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토빈Q분석 모형과 Ohlson의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접대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철・문두철・변정윤(2019)은 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수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접대비 지출이 큰 기업에서 접대비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업무 관련성이 낮은 접대비 지출을 감소시켜서 수익 관련성을 높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정혜・이상열(2020)은 접대비 지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접대비 관련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여러 접대비 관련 정책 중 제도의 성질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접대비 관련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ROA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을 때는 접대비 지출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개선 효과가 약화되며, 접대비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접대비 관련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혁 · 유상열(2021)은 접대비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기업가치를 자산의 시장가치를 자산의 대체원가로 나눈 비율인 토빈의 Q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로써 접대비의 역할보다 시장 확대 및 거래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출로써 접대비의 역할이 커서 긍적적 효과가 부적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업무추진비 효과 중 하나인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유경(2021)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주가 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접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주가가 급락할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형성 비용 증가가 기업의 불투명성과 기업의 부패와 관련이 있다면 주가 급락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대리인 문제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접대비 지출에 영향을 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기업의 접대비가 주가 급락 위험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접대비와 일반기업의 경영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은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경영성과를 수익성이나 주가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목표가 이윤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업무추진비

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2-7> 업무추진비(접대비)와 경영성과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결과

연번	연구자	주요 연구 결과
1	하윤희 (2008)	경영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 자원과 관리를 위한 투입비용(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경영평가 결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짐
2	최수미 (2003)	접대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경영성과가 낮아 기업가치가 파괴된 반면, 접대비 비중이 작은 기업은 접대비 비중과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을 통해 적절한 접대비 지출은 필요하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기업과 사회의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힘
3	최수미 (2007)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 비중이 높은 경우 수익성이 낮음
4	최원욱 등 3인 (2005)	접대비 총액은 수익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은 수익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음
5	이태정 (2009)	접대비 지출과 기업성과(수익성) 관계는 양(+)의 값을 가짐
6	장상록, 김강호 (2010)	접대비 지출과 매출액은 양(+)의 관계를 가짐
7	김성환, 김미나 (2011)	기부금 및 접대비의 지출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업성과에 부정적이지 않음
8	모수원 (2013)	광고비보다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출액과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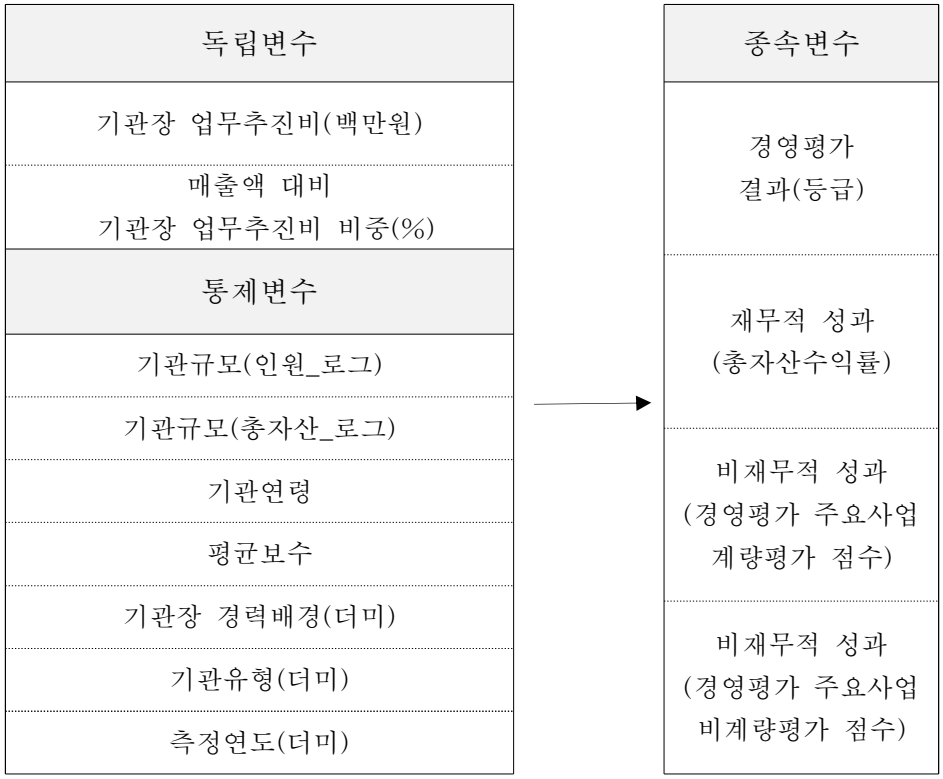
연번	연구자	주요 연구 결과
9	이하진, 권기정 (2019)	투자자산수익률(ROI)로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토빈Q분석 모형과 Ohlson의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접대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10	최병철 등 3인 (2019)	청탁금지법 이후 접대비의 기업의 접대비 수익 관련성이 높아짐
11	최정혜, 이상열 (2020)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ROA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11	최혁, 유상열 (2021)	접대비는 기업가치(토빈의 Q)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13	이유경 (2021)	접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며, 청탁금지법은 기업 접대비가 주가 급락 위험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기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앞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간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접대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는데, 대다수의 연구결과는 접대비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접대비에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골프를 치는 비용에서 룸살롱과 같은 향락업소를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도 선행연구와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적 및 비재무적 경영성과로 분리하여 각각의 영향에 대해 파악해 보려 한다. 또한 접대비와 경영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매출액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분석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여 확인한다.

가설 1: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기관의 재무적 성과(총자산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기관의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기관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기관의 재무적 성과(총자산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기관의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기관의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장희란・박정수(2015)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경영평가결과를 주요 변수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수들을 여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설정하였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기관의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등급으로 측정하되, 종합등급 S등급을 6점으로 하고, E등급을 1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점수로 변경하여 연속형 변수화하였고, 각 점수가 가지고 있는 서열관계를 통계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이 종속변수에 한하여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는 공공기관의 기업성 측면에 대한 성과를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성은 수익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익성을 측정하고자 ROA(총자산수익률)를 활용하였다. ROA(총자산수익률)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총자산을 이익 창출

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또다른 수익성 지표로 ROE(자기자본수익률)도 있는데, 주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일반기업은 ROE가 수익성 지표로써 의미가 있겠으나, 공공기관은 법적인 주주(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와 실질적 주주(국민)가 상이한 복대리인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주가치의 의미가 덜하다고 하여(유승원, 2009), ROA를 수익성 지표로 하였다.

3)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점수)

비재무적 성과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성과를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실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사업부문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등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기관별 수행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평가지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평가되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지혜(2017)도 공공성 측면의 성과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정도를 성과측정지표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 지표를 활용함에 있어 김대영(2018)의 연구에서는 비계량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화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량평가 실적만을 성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이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요사업의 비계량평가 점수도 높이는데 기여했을 수 있을 것이다는 가정을 더하여 주요사업의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를 분리하고 이를 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백만원)

첫 번째 독립변수는 ALIO에 조사대상 기관별로 공시되어 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로 집행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4월말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ALIO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기관장의 네트워크 확장 및 역량 강화의 노력을 측정하는 변수이자 한편으로는 기관장의 사적소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네트워크 역량 강화일지 또는 사적소비일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접대비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많이 집행하는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단순 수치 비교뿐만 아니라 기관 규모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그 영향도도 분석해볼 대상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접대비를 매출액으로 표준화하여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으로 측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기관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각 기업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한도를 정하는 산정방식을 보면 <표 3-1>과 같이 기본한도 외 수입금액별로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그 한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접대비 비중을 정하는데 매출액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2020년 기준)

기본한도금액	수입금액별 한도
기본한도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 A: 1,200만원 (단, 중소기업은 3,6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00억원 이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억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3. 통제변수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수없이 많은데 이들 연구를 모두 분석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참고하여 그 중 유의미하고 널리 인정되는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1) 기관규모(종업원 수, 총자산)

최홍석, 김재훈, 정재진(2008)은 직원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낮아졌다고 하고, 안숙찬(2014)은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았다고 하는 등 조직규모가 경영성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기관규모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Richard L. Daft(2016)는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 소규모 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가지며 유기적

이고 자유로운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직규모가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조직규모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조직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직규모를 측정하는 하위변수로 종업원 수, 총자산, 매출액 등의 변수가 사용되는데, 여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ALIO에 각 기관이 공시한 각 연도별 정규직 현원과 총자산을 조직규모를 측정하는 통제변수로 하였다.

2) 기관연령

장하준(2003)에 따르면 설립연수가 낮은 젊은 기업은 관리 노하우나 조직적 전통,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오래된 기업보다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 낡은 경영 관행이나 조직 타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공기업의 설립연수가 공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유승원(2013)도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조직의 학습효과 축적을 통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기관연령을 경영성과에 대한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어 기관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경영평가 연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한 연 단위 수치를 기관연령으로 활용하였다.

3) 평균보수

유은철·유홍림(2013)은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이 경영실적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혜진(2017)은 기본적으로 평균보수가 높은 조직이 낮은 조직에 비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있고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권태환(2020)도 많은 보수를 받을수록 직무만족감과 노동생산성

이 높아져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여 ALIO에 공시된 각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4) 기관장 경력배경

O'Toole&Meier(2014)의 연구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력배경이 기관장의 관리역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기관장 특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은・임채홍・김나영(2008)은 기관장 취임이전에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역량은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임동민(2012)은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혜진(2017)의 연구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경영평가 점수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관장 경력배경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으며, 그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정치인 출신,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출신, 내부 출신, 교수 출신, 민간기업 및 기타 출신 등 총 5가지로 경력배경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경력배경은 ALIO에 공시된 임원현황에 나와 있는 주요경력 내용 및 네이버 통합검색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5) 기관 평가군 유형

공영복(2013)과 안숙찬(2014)은 경영실적 외에도 기관 평가군 유형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는 공운법에 따라 분류된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이 유형에서도 공기업 중 대규모 SOC기관 위주로 공기업Ⅰ로 그 외 기관은 공기업Ⅱ,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하는데 위탁집행형 중에서도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 유형별로 평가범

주 및 세부 분야의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 이러한 점이 종속변수인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군 기준으로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소형 준정부기관을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였다.

6) 평가연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ALIO 공시자료를 활용한 패널조사로, 측정연도는 고정효과모형 이용을 위해 연도별 더미 처리하였다.

이렇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들과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들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매출액 ÷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 100
종속변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S등급=6, A등급=5, B등급=4, C등급=3, D등급=2, E등급=1
	재무적 성과 (기업성)	총자산수익률(ROA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비재무적 성과 (공공성)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들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들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통제변수	기관규모	정규직 현원
		총자산
	기관연령	평가년도 - 설립연도
	평균보수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
	기관장 경력배경(더미)	1=정치인, 2=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출신,, 3=내부 출신, 4=교수, 5=민간기업 및 기타
	기관 평가군 유형(더미)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군 유형 1=공기업Ⅰ, 2=공기업Ⅱ, 3=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강소형 준정부기관
	측정연도(더미)	연도더미 고정효과모형 이용

제 4 절 분석모형

본 연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ALIO를 활용하여 구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에 있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기관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시간별 변수들의 변화나 각각의 기관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김지영, 2012). 실제 각 공공기관들은 개별법 등으로 정의된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속변수 중 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경우는 S등급에서 E등급까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이므로 이러한 변수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t = a + \beta_1 X_{t1} + \beta_2 X_{t2} + \beta_3 Z_{t1} + \beta_4 Z_{t2} + \beta_5 Z_{t3} + \beta_6 Z_{t4} + \beta_7 Z_{t5} + \beta_8 Z_{t6} + \beta_9 Z_{t7} + \epsilon$$

- 종속변수(Y)= 경영성과

  (Y_{t1}: 기관 경영평가 결과, Y_{t2}: 재무적 성과 = 총자산수익률(ROA),

  Y_{t3}: 비재무적 성과 =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만점 환산),

  Y_{t4}: 비재무적 성과 =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100점 만점 환산))

- 독립변수(X) =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X_{t1}: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X_{t2}: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 통제변수(Z) = 기관규모(정규직 현원, 총자산), 기관연령, 평균보수, 기관장 경력배경, 기관 평가군 유형, 측정연도
  (Z_{t1}: 정규직 현원, Z_{t2}: 총자산, Z_{t3}: 기관연령, Z_{t4}: 평균보수, Z_{t5}: 기관장 경력배경, Z_{t6}: 기관 평가군 유형, Z_{t7}: 측정연도-고정효과)

- t = 연도(2017, 2018, 2019)

- ϵ = 오차항

제 4 장 연 구 결 과 분 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표 4-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357	3.524	0.958	1	5
총자산수익률(ROA)	357	0.326	8.792	-68.674	41.554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	357	90.084	8.877	50.213	100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	357	79.546	5.838	65	95

첫 번째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은 3.524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조사기관 동안 경영평가 결과가 S등급인 기관은 있지 않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총자산수익률(ROA)의 평균은 0.326, 최소값은 -68.674, 최대값은 41.554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변수에서 평균은 90.084점, 최소값은 50.213점, 최대값은 100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비계량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변수는 평균이 79.546점, 최소값은 65점, 최대값은 95점으로 나타났다.

<표 4-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관장 업무추진비 (백만원)	356	15.597	10.258	0.161	51.439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356	0.013	0.029	0.000	0.406

첫 번째 독립변수인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평균은 15.597백만원으로, 최소값은 0.161백만원, 최대값은 51.439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다른 독립변수인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의 평균은 0.013%로, 최소값은 0.000%, 최대값은 0.406%로 각각 나타났다.

<표 4-3> 통제변수 중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관규모 (정규직 현원)	357	1,740.151	3,833.702	55	30,993.5
기관규모 (총자산, 백만원)	357	7,825,700	27,063,629	1,220	197,597,792
기관연령	357	24.151	17.957	1	89
평균보수 (백만원)	357	69.571.12	12.629.83	32.178	99,557

<표 4-4> 통제변수 중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비중(%)	소계
기관장 경력배경	정치인	25	7.02	356*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181	50.84	
	내부	22	6.18	
	교수	70	19.66	
	민간기업 및 기타	58	16.29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Ⅰ	30	8.40	357
	공기업Ⅱ	75	21.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	5.60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10	30.81	
	강소형 준정부기관	122	34.17	
평가연도	2017년	117	32.77	357
	2018년	122	34.17	
	2019년	118	33.05	

* 연중 임용된 기관장이 없는 결측치 1건(2019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

통제변수 중 연속형 변수인 정규직 현원, 총자산, 기관연령 및 평균보수의 평균은 각각 1,740.151명, 7조 8,257억원, 24.151년, 69,571.12백만원으로 측정되었다. 통제변수 중 범주형 변수인 기관장 경력배경을 보면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출신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기관 평가군 유형에서는 강소형 준정부기관이 3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변수간 다중공선성 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이 상호 선형관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arity)가 발생하여 데이터 분석 시 부정확한 회귀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표 4-5>와 같이 구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변수마다 VIF값을 보고 그 크기가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각 변수와 전체 평균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표 4-5> 연구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VIF값)

구분	변수명		VIF값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1.38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1.17
통제변수	기관규모	정규직 현원	1.67
		총자산	1.75
	기관연령		1.17
	평균보수		1.48
	기관장 경력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4.11
		내부	1.79
		교수	3.23
		민간기업 및 기타	2.91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 I	(기준변수)
		공기업 II	4.1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1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17
		강소형 준정부기관	6.62
	평가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1.36
		2019년	1.37
평균 VIF값			1.38

제 3 절 회귀분석 결과

1.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서열형 변수인 경영평가 결과이므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9% 신뢰수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높을수록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에 대한 분석에서는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불채택하였다.

<표 4-6>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053***	0.049**	
			(0.020)	(0.020)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5.879		-2.545
			(6.313)		(6.171)
통제변수	기관 규모	정규직 현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0.010	0.009	0.004
			(0.012)	(0.012)	(0.012)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0.291 (0.581)	0.286 (0.583)	0.189 (0.580)
		내부	-0.461 (0.795)	-0.490 (0.797)	-0.757 (0.791)
		교수	-0.439 (0.664)	-0.453 (0.666)	-0.558 (0.663)
		민간기업 및 기타	-1.090 (0.681)	-1.150* (0.681)	-1.176* (0.682)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 I	<기준변수>		
		공기업 II	-0.884 (0.944)	-0.886 (0.952)	-0.825 (0.953)
		기금관리형	-1.046 (1.172)	-0.982 (1.180)	-0.277 (1.148)
		위탁집행형	-0.704 (0.986)	-0.659 (0.993)	-0.125 (0.970)
		강소형	-0.021 (1.022)	-0.067 (1.030)	0.312 (1.025)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0.282 (0.264)	0.274 (0.264)	0.288 (0.263)
		2019년	0.454* (0.273)	0.457* (0.273)	0.527* (0.272)
R-squared			해당없음		
Observations			355		

*** p<0.01, ** p<0.05, * p<0.1

2. 재무적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재무적 성과(총자산수익률: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비중이 클수록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에 대한 분석에서도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은 불채택하였다.

<표 4-7> 총자산수익률(ROA)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총자산수익률(ROA)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096 (0.133)	-0.148 (0.126)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59.452 (52.011)		-72.114 (48.899)
통제변수	기관규모	정규직 현원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총자산수익률(ROA)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2.846 (3.050)	2.752 (3.051)	2.858 (3.046)
		내부	8.804** (3.914)	8.619** (3.913)	9.085** (3.890)
		교수	4.662 (3.480)	4.781 (3.481)	4.574 (3.474)
		민간기업 및 기타	4.827 (3.818)	4.270 (3.789)	4.913 (3.812)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Ⅰ	<기준변수>		
		공기업Ⅱ	2.649 (11.433)	2.636 (11.441)	3.067 (11.406)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1.710 (5.154)	1.848 (5.156)	2.011 (5.131)
		강소형	#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0.765 (1.159)	0.718 (1.159)	0.740 (1.157)
		2019년	0.415 (1.303)	0.444 (1.304)	0.292 (1.291)
R-squared			0.053	0.047	0.051
Observations			355		

***p<0.01, ** p<0.05, * p<0.1

고정효과모형에서 3개년 자료 내 변동이 없어 STATA에서 자동적으로 제거처리(omitted)

3.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 중 먼저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배제된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만점 환산)를 종속변수로 한 <가설 1-3>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90% 신뢰수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높을수록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반면,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에 대한 분석에서는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불채택하였다.

<표 4-8>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환산)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156* (0.093)	0.127 (0.087)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32.828 (36.167)		-12.316 (34.179)
통제변수	기관 규모	정규직 현원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환산)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0.792 (2.121)	0.740 (2.119)	0.772 (2.129)
		내부	-2.669 (2.721)	-2.771 (2.718)	-3.125 (2.719)
		교수	-1.993 (2.420)	-1.927 (2.418)	-1.850 (2.428)
		민간기업 및 기타	-0.070 (2.655)	-0.377 (2.632)	-0.209 (2.665)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 I	<기준변수>		
		공기업 II	-10.462 (7.950)	-10.469 (7.947)	-11.139 (7.973)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1.403 (3.584)	-1.327 (3.581)	-1.891 (3.587)
		강소형	#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2.865*** (0.806)	2.839*** (0.805)	2.906*** (0.809)
		2019년	5.672*** (0.906)	5.688*** (0.906)	5.870*** (0.902)
R-squared			0.228	0.225	0.218
Observations			355		

*** p<0.01, ** p<0.05, * p<0.1

고정효과모형에서 3개년 자료 내 변동이 없어 STATA에서 자동적으로 제거 처리(omitted)

한편,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클수록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 중 먼저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가설 1-4>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클수록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4>역시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와 <가설 2-4>는 불채택하였다.

<표 4-9>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환산)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005 (0.066)	0.039 (0.062)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39.013 (25.687)		39.694 (24.121)
통제변수	기관규모	정규직 현원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100점 환산)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0.057 (1.506)	0.005 (1.510)	-0.057 (1.503)
		내부	0.545 (1.933)	0.666 (1.937)	0.530 (1.919)
		교수	0.351 (1.719)	0.273 (1.723)	0.356 (1.714)
		민간기업 및 기타	1.470 (1.886)	1.836 (1.876)	1.466 (1.880)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 I	<기준변수>		
		공기업 II	-1.640 (5.646)	-1.632 (5.663)	-1.663 (5.627)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2.129 (2.545)	2.038 (2.552)	2.113 (2.531)
		강소형	#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0.548 (0.572)	0.579 (0.573)	0.549 (0.571)
		2019년	2.041*** (0.644)	2.022*** (0.645)	2.048*** (0.637)
R-squared			0.086	0.076	0.086
Observations			355		

*** p<0.01, ** p<0.05, * p<0.1

고정효과모형에서 3개년 자료 내 변동이 없어 STATA에서 자동적으로 제거 처리(omitted)

4. 소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도별 특성 및 기관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 중 서열형 변수인 경영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고 회귀분석에 다른 종합적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다중회귀분석 종합결과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경영평가 등급	ROA	주요사업 계량	주요사업 비계량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053*** (0.020)	-0.096 (0.133)	0.156* (0.093)	0.005 (0.066)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5.879 (6.313)	-59.452 (52.011)	-32.828 (36.167)	39.013 (25.687)
통제변수	기관 규모	정규직 현원	-0.000 (0.000)	0.001 (0.003)	-0.004** (0.002)	-0.002 (0.001)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0.010 (0.012)	#	#	#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경영평가 등급	ROA	주요사업 계량	주요사업 비계량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0.291 (0.581)	2.846 (3.050)	0.792 (2.121)	-0.057 (1.506)
		내부	-0.461 (0.795)	8.804** (3.914)	-2.669 (2.721)	0.545 (1.933)
		교수	-0.439 (0.664)	4.662 (3.480)	-1.993 (2.420)	0.351 (1.719)
		민간기업 및 기타	-1.090 (0.681)	4.827 (3.818)	-0.070 (2.655)	1.470 (1.886)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 I	<기준변수>			
		공기업 II	-0.884 (0.944)	2.649 (11.433)	-10.462 (7.950)	-1.640 (5.646)
		기금관리형	-1.046 (1.172)	#	#	#
		위탁집행형	-0.704 (0.986)	1.710 (5.154)	-1.403 (3.584)	2.129 (2.545)
		강소형	-0.021 (1.022)	#	#	#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0.282 (0.264)	0.765 (1.159)	2.865*** (0.806)	0.548 (0.572)
		2019년	0.454* (0.273)	0.415 (1.303)	5.672*** (0.906)	2.041*** (0.644)
R-squared			해당없음	0.053	0.228	0.086
Observations			355	355	355	355

*** p<0.01, ** p<0.05, * p<0.1

: 기관연령, 기관 평가군 유형 중 기금관리형 및 강소형은 고정효과모형에서 3개년 자료에서 변동이 없어 STATA에서 자동적으로 제거 처리(omitted)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1-1>과 <가설 1-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가설 1-1>은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조사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경영평가가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 1-3>은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조사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1백만원 증가할수록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가설 1-2>와 <가설 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액과 경영평가 결과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윤희(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주요사업 계량평가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계량평가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영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 자원과 관리를 위한 투입비용의 대체변수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활용되었다고 하기보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투입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활용되어 주요사업의 계량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한 경우 어떠한 결과도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법인세법에 인정하는 손금한도 범위 내에서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익과 유의한 관련성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나 접대비 비중이 높은 경우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이윤 발생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업무추진비와 수익간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

할 수 없게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 업무추진비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변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한 동결 및 삭감 방침을 밝힌데 대해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며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래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이것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띄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경영평가 등급,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총자산수익률(ROA),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주요사업 성과를 계량평가 결과와 비계량평가 결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정규직 현원 및 총자산과 같은 기관규모, 기관연령, 기관 평가군 유형, 기관장 출신배경 등과 같은 기관특성 요인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민간기업의 접대비와 그 경영성과간의 관계까지 확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법인세 손금한도 내 접대비 집행액은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수립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연도별 특성과 기관 자체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연도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등급과 주요사업 계량평가 결과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경영평가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과 주요사업 계량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을 채택하였다. 반면 재무적 성과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결과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고, 기관 매출규모를 고려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매출액으로 표준화한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해 관련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가설 1-2, 1-4, 2-1, 2-2, 2-3, 2-4)

이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기관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높을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외 유관기관 및 직원 내부격려 등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 원만한 사업추진 및 내부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사업의 계량적 성과창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기관장의 내·외부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한 오문청·정수진(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가 특이했던 점은 수익창출과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접대비가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이 수익성 향상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고, 공공성 측면에서 주요사업의 계량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석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조직체의 특성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의 효과에도 반영되는데 공공성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평가등급 및 기관 고유사업의 계량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가 정부지침에 따라 법인세 손금한도 내에서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굳이 업무추진비 편성액을 전년대비 삭감편성하는 정부의 방침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적소비로 남용되지 않도록 그 집행기준을 더 강화하는 수준의 업무추진비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업무추진비의 효과를 더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ALIO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경영평가 결과,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민간기업의 접대비가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대부분이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경영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외 유관기관 및 직원 내부격려 등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 원만한 사업추진 및 내부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사업의 계량적 성과창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정부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삭감 및 동결 방침이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미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추진비 삭감 및 동결 방침은 공공기관 고유사업의 성과창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침은 재고될 필요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및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분석기간을 좀더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후로 나누어 업무추진비와 경영성과간 관계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로, 두 독립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모형, 즉 <가설 1-2> 및 <가설 2-2>의 경우와 <가설 1-4> 및 <가설 2-4>의 경우 R^2 값이 0.1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종속변수인 총자산수익률(ROA) 및 주요사업 비계량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수익률(ROA)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내보고자 하는 탐색적 의미에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의 종속변수가 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하여 연구해 본다면 보다 설명력이 높은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그리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외에도 ALIO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각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조사해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나, 일부 기관은 세부 손익계산서 내용에 업무추진비를 명시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업무추진비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기관별로 재무제표상 세부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파악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본다면 보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간기업의 접대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았는데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이 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행태에 있어 기관장의 경력 및 출신배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관장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여 연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국, 최상일, & 주효진. (1999).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예산결정과정 및 지출패턴 분석: 대구광역시 8 개 구 군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309-325.

최수미. (2003). 접대비지출과 기업의 수익성. LG주간경제, 제719호.

_____. (2007). 접대비 지출실태 및 접대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 회계와정책연구, 12(1), 259-279.

최원욱, 김갑순, & 이영한. (2005).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4), 87-121.

신무섭. (200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분석. 지방자치연구, 11, 1-18.

_____. (2009).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1-22.

방준용. (2006).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 차이분석: 기획· 설립 및 내부관리요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2), 81-109.

이권훈, & 박민정. (2006). 정부산하기관 예산과목구조 표준화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6, 1-215.

김태은, 임채홍, 김나영. (2008).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 -성과와 성과보상간 분석을 통한 증거의 제시-. 한국정책학회보, 17(2), 149-180.

최흥석, 김재훈, & 정재진. (2008).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1-23.

하윤희. (2008). 경영평가결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태정. (2009). 접대비 지출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연구, 24, 191-209.

유승원. (2009).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 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_____ (2013).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 「한국개발연구」, 35(2): 1-39.

윤수재, & 이혜승. (2009).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21-50

장상록, & 김강호. (2010). 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5, 215-242.

김성환, & 김미나. (2011).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40(3), 659-685.

박용성, & 남형우. (2011). 공공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79-100.

이희섭, & 최진현. (2011).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9, 249-278

권일웅. (2012).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0.

김지영.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 재정학연구, 5(3), 69-97.

임동민. (2012).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유미년. (2012). 공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영복. (2013). 기관특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모수원. (2013). 접대비가 기업의 효율성, 매출액,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광고선전비와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8(6), 397-412.

유은철 & 유홍림. (2013).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분석 -2011~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0), 34-58.

김형기(2014), 여성인력 활용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숙찬 (201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7(6), 835-859

우형록. (2015).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9), 5998-6008.

장희란, & 박정수. (2015).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규모효과 분석 -2008~ 2012 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1-26.

강혜진. (2017).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지혜. (2017). 공공기관 인력구성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용석. (2017).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용석, 황문태, & 김상헌. (2018). 정치적 변수가 업무추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6.

안선민, & 이수영. (2017). 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4), 133-163.

오문청, & 정수진. (2017).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 분석. 경영교육연구, 32(5), 265-292.

김보은. (2017). 공공기관 리더가 지닌 개인적 수준의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인)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1), 153-191.

강태혁 (2018) 정부 세출예산 비목분류 체계의 합리화 방안, 정부회계연구, 16:1, 73-120

김대영. (2018). 청렴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영교, & 김정은. (2019). 청렴도 지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32, 51-74.

윤여진. (2019). 공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및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실증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하진, & 권기정. (2019).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용이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9), 41-64.

최병철, 문두철, & 변정윤. (2019). 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수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4(3), 37-66.

권태환. (2020). 조직 청렴도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정혜, & 이상열. (2020). 접대비 관련 정책효과 분석: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회계와정책연구, 25(2), 1-25.

이유경. (2021).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주가 급락위험: 대리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50(1), 73-111.

최혁, & 유상열. (2021). 시장 경쟁 정도가 접대비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5(5), 71-86.

Kaplan, R. S., & Norton, D. P. (1992). The balanced score: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vard Business Review. 1: 10.

Zacca, R., M. Dayan, and T. Ahrens, (2015). Impact of network capability on small business performance. Management Decision, 53(1), pp.2-23

<단행본>

윤성식. (2003). 예산론. 나남출판

장하준. (2003). 국가의 역할. 부키.

김준기. (2014). 공기업 정책론. 문우사.

박순애. (2017).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리: 경영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과제. 박순애 (편). 문우사.

Richard L. Daft. (2016). 김광점 외 옮김. 조직이론과 설계. 한경사

O′Toole Jr, L. J., & Meier44, K. J. (2014). Public Management, Context, and Performance: In Quest of a More.

경제기획원,『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 1992.

경제기획원, 『'9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1994. 1.

기획예산처, 『200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2004. 1.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 2008. 9.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7. 3.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8. 3.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9. 3.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0. 3.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2020. 12.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2020. 12.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 12.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0. 12.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

<참고 사이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록> 경영평가등급에 대한 OLS 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명		순서형 로짓 모형	OLS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독립변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0.053***	0.017***	0.019***	0.014
			(0.020)	(0.006)	(0.007)	(0.011)
	매출액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5.879	-3.362*	-2.621	2.947
			(6.313)	(1.937)	(2.226)	(4.172)
통제변수	기관 규모	정규직 현원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연령		0.010	0.002	0.003	#
			(0.012)	(0.003)	(0.004)	
	평균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관장 경력 배경	정치인	기준변수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0.291	0.045	0.096	0.175
			(0.581)	(0.199)	(0.199)	(0.245)
		내부	-0.461	-0.089	-0.169	-0.207
			(0.795)	(0.276)	(0.268)	(0.314)
		교수	-0.439	-0.227	-0.149	-0.048
			(0.664)	(0.221)	(0.225)	(0.279)
		민간기업 및 기타	-1.090	-0.472**	-0.334	-0.186
			(0.682)	(0.225)	(0.234)	(0.306)
	기관 평가군 유형	공기업Ⅰ	기준변수			
		공기업Ⅱ	-0.884	-0.284	-0.284	-0.543
			(0.944)	(0.230)	(0.325)	(0.917)
		기금관리형	-1.046	-0.291	-0.329	#
			(1.172)	(0.288)	(0.404)	
		위탁집행형	-0.704	-0.171	-0.270	-0.813*
			(0.986)	(0.243)	(0.337)	(0.413)
		강소형	-0.021	0.024	-0.004	#
			(1.022)	(0.252)	(0.352)	
	연도	2017년	기준변수			
		2018년	0.282	0.125	0.111	0.157*
			(0.264)	(0.118)	(0.088)	(0.093)
		2019년	0.454*	0.198*	0.163*	0.258**
			(0.273)	(0.119)	(0.090)	(0.105)
R-squared			해당없음	0.153	해당없음	0.088
Observations			355	355	355	355

*** p<0.01, ** p<0.05, * p<0.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of the CEOs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on Management Performance

KIM, Kyudong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enterprises in Korea formulate and spend business promotion expenses(BPE). In the government guidelin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re defined as "annual membership fees, other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projects, and expenses incurred for basic operation of each enterprise, such

as business consultations and meetings," and include expenses of entertainment. Although such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ccount for a low proportion of the total budget, unlike other budget expenditures,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One is that business promotion expenses is an investment to form a network that is necessary for work and the other is that it is one of perquisite consumption of CEO.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to freeze and cut the budget for business promotion expenses for public enterprises and public enterprises are opposing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project.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It was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the work promotion expenses of the CEOs of public enterprises were used to strengthen network capabilities or only private consumption through th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on the enterprises' performance.

The 122 public and quasi-governmental enterprises which are subject to management evaluation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s every year were analyzed, and the period of study is 3 years from 2017 to 2019.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and the ratio of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in sale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was set as 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management evaluation grad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actors such as institutional size such as regular employees and total assets, institutional age, institutional evaluation group type, and background of institutional heads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As there were few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nterprise's BPE and management performance, we analyzed other studies that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companies' BPE and their business performance. Those showed that the spending amount within the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rofitability.

Based on those prior studies,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and the ratio of the spending amounts of CEO's BPE in sales, the more positive i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To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rvey year and the enterprise's own characteristics, a fixed effect model was used, and the year was also treated as a dummy variable, and an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for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pendent variable, the management evaluation grade, and the results of the major business quantitative evalu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spending amounts of the CEO's BPE.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BPE spent by the CEO, the positive effect on the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which led to smooth business promotion and internal morale,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quantitative resul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vate companies aimed at generating profits and maximizing pro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fitability,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spending of BP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fitabi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were positive. It can be carefully estim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mixed organization that pursues both corporate and public nature of public enterprises are reflected in the effect of the CEO of the institution's BPE, and have a greater impact on public nature.

keywords : business promotion expenses, public enterprises, network,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management performance, fixed effect model, ordered logit model
Student Number : 2021-23540